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414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9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황보승희 · 김승수
김상훈 · 박 진 · 윤두현
정경희 · 신원식 · 김예지
조명희 · 강대식 · 성일중
백종헌 · 송석준 · 김 응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‘2021년 교육기본통계’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·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총 160,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.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.

다문화학생은 신체적·문화적·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,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건을 조사·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

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3 신설).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다문화가족 학생의 보호) ① 누구든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이하 “다문화학생”이라 한다)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그 심의과정에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16조의3(다문화가족 학생의 보호) ① 누구든지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이하 “다문화학생”이라 한다)에게 학교폭력을 행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그 심의과정에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|